

“제16회 백두포럼, 오만 무스카트서 개최하길”

중기중앙회장, 오만 상공회의소 회장·상무부 장관과 간담서 제안 받아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오만을 방문해 파이잘 압둘라 알 라와스 오만 상공회의소 회장 및 카이스 빈 모하메드 알 유세프 오만 상무부 장관과 릴레이 간담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파이잘 알 라와스 오만 상의회장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한국의 중소기업이 오만에 진출하는 첫걸음으로 제16회 백두포럼을 다른 곳이 아닌 무스카트에서 꼭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두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10년부터 매년 한국과 밀접한 경제교류가 있는 나라를 순회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하는 글로벌 포럼이다.

아울러 그는 “오만 대표단이 올해 4월 일본 오사카 엑스포를 방문하기 전에 한국을 둘러 양 단체에서 서로가 원하는 업종에 대한 리스트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오만을 방문해 파이잘 압둘라 알 라와스 오만 상공회의소 회장 및 카이스 빈 모하메드 알 유세프 오만 상무부 장관과 릴레이 간담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음날 이어진 간담회에서 카이스 알 유세프 오만 상무부 장관은 “오만 상의의 백두포럼 무스카트 개최 제안

을 알고 있으며, 오만 정부 차원에서 투자설명회와 진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며 오만과 한국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만과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으므로 한국기업이 무스카트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에서 값싼 노동력 공급도 가능해 한국 중소기업과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3년 두바이 포럼에서 의료기기와 제약, 스마트팜 등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소개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오만이라는 나라는 한국 기업들에게 낮은 부분도 있지만 양 기관에서 백두포럼의 오만 개최를 요청하는 만큼 단순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 협력을 확대하면 양국 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만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면 서로 필요한 기술과 업종 등을 매칭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 개최하자”고 화답했다.

/김옥기 기자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6일 농협중앙본부로부터 상호금융예수금 9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상호금융예수금 9천억원 달성탑 수상

남원농협, 2023년 8천억원 수상 1년만의 쾌거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6일 농협중앙본부로부터 상호금융예수금 9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달성은 지난 2023년 상호금융예수금 8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한 이후 약 1년 만의 쾌거로 남원농협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성과이다. 남원농협은 지난해 종합업적평가 우수농협상 수상, 지도사업 종합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수상에 이은 업적으로, 상호금융 사업뿐만 아니라 농협 본연의

사업에도 충실하는 전국에서 귀감이 되는 농협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기열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남원농협과 늘 함께 해주시는 조합원, 고객 및 남원시민의 사랑과 성원, 임직원의 끝없는 노력 덕분에 가능한 영광으로 달성한 성과 이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조합원을 넘어 시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남원농협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은행, ‘소상공인 대환대출 2차 이벤트’ 당첨자 발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2차 경영지원금지원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북은행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규 지원을 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이벤트를 통해 1등 1명에게 당첨금 1백만원, 2등 2명 각 50만원 등 총 6명에게 당첨금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부 주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판매하는 정책대출로 연 7%이상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정금리 연 4.50%, 10년간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을 전환해 주는 이차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대출이다.

당첨자 오모씨는 “소상공인 대환 대출을 통해 저렴한 이율로 전북은행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행운까지 찾아와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일상 속 작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들이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으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농협, 2025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 “청렴한 농협 구현”

윤리경영 실천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12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범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로 삼았다.

특히, 윤리경영 실천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희망농업과 행복농촌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으며,



부적절한 외부청탁을 배격하는데 적극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윤리경영을 위해 전북농협은 매일 행동강령 준수 캠페인 활동 및 전 임직원 준법 자기 점검 실시 등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전 임직원이 동참하고 있다.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전북농협 전 임직원은 농협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형식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청렴농협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사랑받고 신뢰받는 전북농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농진청, 탈북 농업인 ‘조기 정착·안심 영농’ 등 다양한 분야 지원책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탈북민이 농촌에 조기 정착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협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2월 12일, 충북 옥천군에 있는 포도·인들개 농가를 방문해 귀농 이후 적응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듣고 재배 현장을 살폈다.

아울러 농가에서 새로 시도한 포도(‘샤인머스켓’)의 주요 시기별 시비요령을 비롯해 재배 기술 토양·병해



충 관리, 포도 가지치기(전정) 현장 연시를 참관했다.

탈북 농업인 김모씨는 “포도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토양·재배·병해충 관리는 물론 작과 수 및 당도 관리 등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의 기술지원 덕분에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라며 “포도나무 수형이 잘 잡혔고, 포도 맛이 우수해 올해 3,0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농촌진흥청은 이상기상 등 여러 가지 힘든 영농여건을 극복하고 탈북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낼 수 있도록 농업기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라며 “영농교육·우량 종자 지원,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12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에 500만원을 기부하며 고향사랑을 위한 기부 실천에 동참했다.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12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에 500만원을 기부하며 고향사랑을 위한 기부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기부 외에도 백 은행장은 지난 달 17일 임원 및 부·지점장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임직원의 자발적 동참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

행한 바 있다.

백종일 은행장은 “지역사랑과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좋은 제도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적극 동참하며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